

“반값” 무등록 도로연수의 ‘위험한 유혹’

올해 초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A씨(27)는 기필코 운전대를 잡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면허를 딴 지 8년 차지만 ‘장롱면허’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서다.

집 근처에 유명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있어 연락했지만, 주말에 도로연수를 받으려면 몇 개월 기다려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에 검색하자 수많은 ‘방문 도로연수’ 후기가 나왔다.

연수 비용도 20만 원 후반~30만 원 초반으로 앞서 알아본 학원에 비하면 반값 수준이었다. 하지만 A씨는 앞서 알아본 학원에 등록했다. 불법이라서 저렴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상 경찰청에 등록하지 않고 운전 교육을 하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2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도로연수 적발 건수는 ▲2020년 1건 ▲2021

불법 적발 2020년 1건→ 지난해 7건

휴업·폐업으로 정식 운전학원 줄어 연수생 차차 이용 등 미끼로 ‘성행’ 제동장치 없고 보험 적용도 안 돼 사고 위험과 추행 등 범죄 가능성 ↑

년 4건 ▲2022년 0건 ▲2023년 7건 ▲2024년 (현재) 6건으로 모두 18건이다.

도로연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도로 주행 교육의 한 종류로 운전면허를 이미 취득했지만, 운전 능력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육이다.

현재 인천에 등록된 운전학원은 모두 13곳으로 지난해 초 대비 2곳 줄었다. 지난해부터 1곳은 휴업 중이고, 이달에도 1곳이 폐원한 상태다.

정식으로 도로연수를 받을 수 있는 학원 수

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이에 자동차운전학원 대비 저렴한 비용과 연수생 차차이용 등을 미끼로 불법 도로연수가 성행하고 있다.

문제는 제대로 된 제동장치도 없이 무자격자를 통해 교습이 이뤄지면서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점이다. 불법이다 보니 제대로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일도 허다하다.

경찰청은 지난달 4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3개월 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로연수는 사고 위험이 높고 보험 적용도 안 된다”며 “강제추행 등 제2의 범죄 발생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폐단이 커서 현재 집중단속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검색하면 많은 업체가 검색되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사이트 폐쇄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인천지역 면허 신규 취득자수는 ▲2021년 4972명 ▲2022년 4832명 ▲2023년 5534명으로 집계됐다.

김민지 기자

5월 17일 ‘2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한진호 전 국정원 차장 내정
김수진 교수 등 위원회 7명 구성 완료

인천시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을 완료했다.

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인천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를 구성, 다음달 17일 출범한다고 25일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인천시의회·위원추천위원회가 각 2명, 인천시교육청·국가경찰위원회가 각 1명을 추천하고, 인천시장이 1명을 지명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제2기 위원장에는 시장이 지명한 한진호(사진) 전 국가정보원 제2차장이 내정됐다.

위원은 ▲시의회가 추천한 김수진 인천대 법학부 교수, 김진택 전 시 자치행정국장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박준길 전 경찰청 정보국 정보2분실장, 조정필 전 인천중부경찰서장 ▲시교육청이 추천한 김문종 변호사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한 정승용 전 인천경찰청 123부장으로 구성됐다.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위원장 내



용 전에 검증한다.

제1기 위원회 임기가 다음달 16일에 종료되면 제2기 위원회는 17일부터 3년의 임기를 개시한다.

제2기 위원회 출범식은 임기 개시일인 17일에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계획이다.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돼 사무국장을 겸임하는 상임위원은 제2기 위원회 첫 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이병록 시 자치경찰위원장은 “2021년 5월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치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제2기 위원회가 자치경찰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유정희 기자

30년 해역수호 임무 완수한 ‘3001함’ 에콰도르에 양여

해경, 약정서에 서명하고 절차 진행

최초의 ‘3000톤급’으로 상징성 커
6개월 정비 후 해상범죄 단속 투입



해양경찰 역사 최초 3000톤급 대형함정 3001함이 30여 년 우리 해역수호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에콰도르 국방부 간 양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25일 해경청에서 방한 중인 히안카를로 로프레도(Giancarlo Loffredo) 에콰도르 국방부장관이 3001함 양여에 관한 약정서 서명을 하고, 전남 목포에 있는 3001함을 찾아 인수 절차를 꼼꼼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양도하는 3001함은 해양경찰 역사 최초의 3000톤급 함정으로서 길이 105m, 폭 15m, 높이 38m에 달하는 대형 경비함정으로 1994년 부산해양경찰서에 배치돼 올해 3월 11일까지 우리 해역 수호 임무를 완수하고 퇴역했다.

에콰도르 국방부는 3001함을 한국 내 조선소에서 6개월간 정비하고, 운용요원

들에 대해 함정운용술 등 인수교육을 마친 후에 에콰도르까지 자력 항해로 이동할 계획이다.

3001함은 향후 에콰도르 해군의 기함으로서 영해 주권 수호, 마약 및 해상범죄 단속, 불법 조업 차단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에콰도르 국방부 장관은 “3001함이 에콰도르 해군에 배치되면 해양에

서의 국방·치안·안전 분야에서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평가하며 “자국 해역을 연평균 60여 척 통항하는 한국 국적 선박에도 유사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에 에콰도르에 양여되는 3001함은 해양경찰 최초 3000톤급 함정으로 매우 큰 상징성이 있는 함정이며 우리 정부가 해외 양여한 함정 중 최대 톤수 함정이다”며 “에콰도르 해군 기함으로서 에콰도르의 해양안보·안전은 물론 세계자연유산인 갈라파고스 주변 해역의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파수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



25일 양경청경비함정 에콰도르 양여 약정서 서명 후에 김종욱 해양경찰청장과 히안카를로 로프레도 에콰도르 국방부 장관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해양경찰서 제공

정상구 옹진 부군수 “전 국민 여객선 동일 요금제”

기초단체장 협의회 정기회의서 건의
섬 주민 여객운임 지원 예산 추가도

정상구 옹진군 부군수가 25일 충남 보령에서 열린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섬 지역 여객선 전 국민 동일요금제’ 및 ‘섬 주민 여객운임 지원사업 예산 추가 지원’을 건의했다.

현재 여객선은 2020년 10월 개정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타 대중교통수단 대비 높은 운임으로 섬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으며, 섬 지역의 경기침체와 인구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높은 운임으로 인한 여객선 이용객 감소는 연안여객선사의 경영을 악화 및 영세화를 가속화시켜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 및 해상대중교통 활성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

다. 이에 군에서는 전 국민이 저렴한 운임으로 섬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섬 지역 여객선 전 국민 동일요금제’의 시행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섬 주민의 여객선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을 위한 국비 예산 축소로 지원 사업이 조기 중단될 우려가 제기돼 국비의 추가 지원을 건의했다.

정 부군수는 “높은 여객선 운임으로 인한 섬 방문의 어려움은 섬 지역의 경기침체로 이어져 정주여건을 악화시키고 인구소멸을 가속화 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 국민이 저렴한 운임으로 섬을 방문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정기회의에서는 건의 안건 보고 외에도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등을 홍보하고 섬 지역 현안을 협력하기로 협의했다.

김주현 기자

진실이 통하는 대한민국! 경기신문이 만들어 갑니다

경기신문

서울의 중심에서 만나는 효율적인 광고 매체, 경기신문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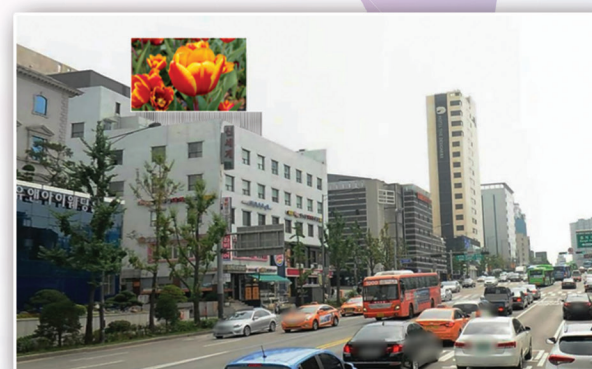
전광판광고 문의 031) 268-8330



KTX 서울역 (고가도로공원) 앞 남대문로
서울특별시 중구 동일로 22-6 (남대문로5가) 덴탈아트빌딩



사흥IC. 신림역 → 서울대, 사당역 방향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원로 1633 (신림동) 청도빌딩 8층



자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 합정역 방향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00 (서교동) 임오빌딩